미션리

2026. 6. 9
화요일(주간)
제 866호

등록번호 광주 다 00100
(1999년 7월 2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社是
복음·선교·화합

정통 기독교 신문 미션리

발행·편집인 : 박 현 주
발 행 소 : 미션21
인 쇄 처 : (주)대한칼라
대 표 전 화 : (062) 367-9109
F A X : (062) 367-9108
e-mail : phj2930@nate.com
(우)61652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69(월산동 184-1 동삼빌딩)

미션21 입금계좌
농 협 645-02-066108 예금주 : 박 현 주
국민은행 573-01-0045-028
광주은행 146-127-005850 예금주 : (유) 미션21

구독 및 광고문의 (062) 367-9109

3 기획특집 - 녹색교회, 환경주일 '광주벧엘교회'

'녹색교회'를 지향하는 광주벧엘교회(위임목사 리종빈)가 지난 주 '환경주일 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7개 교구별로 교회주변 줍깅(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다음 주 14일에는 녹색주일 예배로, 전력 등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 예배를 드린다.

5 본지 창간 27주년 특집 I - '광주의 아버지' 오방 최흥종 선생

가진 것을 나누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사람들의 곁에 머물렀던 사람…한센병 환자들의 친구였고, 걸인들의 아버지였으며 가난한 이들의 이웃이었던 사람.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실천적으로 증명해 보인 사람이다.

"한국에 찾아온 무슬림, 교회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2026 열.무.김.치세미나' 6월 16일 서울 삼일교회서

한국에 거주하는 무슬림 이주민과 난민을 향한 선교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무슬림 선교전략과 사례를 나누는 '2026 열.무.김.치세미나'가 오는 6월 16일 서울 삼일교회 비전센터 그라운드31에서 개최된다.

'열방에서 온 무슬림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한국교회 네트워크'를 표방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무슬림 이주민들을 향한 복음전도와 지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 측은 "과거에는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방의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계신 시대"라며 "한국에 찾아온 무슬림 이웃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실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현장 사역자들이 참여해 실제적인 선교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서는 셈 문 선교사는 서울 이태원 지역에서 오랫동안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거리 복음전도 사역을 펼쳐왔다. 한국 최대 무슬림 밀집지역 가운데 하나인 이태원에서 직접 경험한 전도사례와 간증, 무슬림과의 관계 형성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안드레 선교사는 시흥의 베이든 누르(빛의 집, 아랍이주민난민센터)사역을 통해 아랍권 이주민과 난민들을 섬기고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무슬림을 선교대상 이전에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바라보며 관계를 형성하고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실제 사례를 나눌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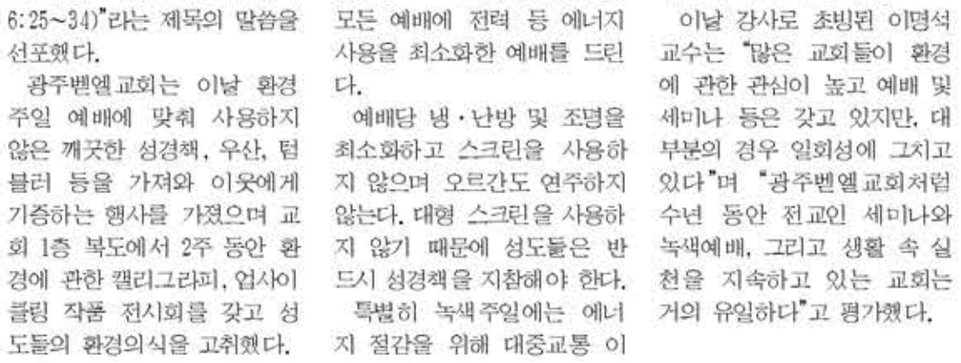
또한 정연주 사역자(희망의 마을센터), 김하리 사역자(램프다운문화센터), 구은혜 사역자(SH센터)는 무슬림 여성과 어린이 사역 사례를 발표한다. 참석자들은 여성과 어린이를 통한 가정 사역의 가능성과 지역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역 모델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년간 튀르키예에서 선교사로 사역한 김종일 교수는 무슬림 선교의 현재와 미래,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과제에 대해 강의한다. 김 교수는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무슬림 사회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선교 접근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는 무슬림 선교에 관심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뿐 아니라 지역교회 성도들에게도 실제적인 도전과 비전을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광주와 전남 지역 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세미나는 6월 16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참가비는 1만 원(점심식사 및 교재 포함)이다.

사진은 지난 2024년 열.무.김.치 정기수양회를 마치고



광주벧엘교회 성도들이 환경주일 예배를 드리고 7개 교구별로 구역을 나눠 '교회주변 줍깅(환경정화)' 활동에 나서기 전 면장갑을 낀 손을 흔들고 있다.

'녹색교회 지향' 광주벧엘교회, 환경주일 예배 성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주제 말씀
교구별 줍깅, 에너지 최소화 녹색주일 예배도

'녹색교회'를 지향하는 광주벧엘교회(위임목사 리종빈)가 지난 주 '환경주일 예배'를 드렸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오전 1~3부 예배에 강사로 초청된 이명석 목사(아신대 교수)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태 6:25~34)"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다.

광주벧엘교회는 이날 환경주일 예배에 맞춰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성경책, 우산, 텀블러 등을 가져와 이웃에게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교회 1층 복도에서 2주 동안 환경에 관한 캘리그라피,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회를 갖고 성도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했다.

이 교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7개 교구별로 교회주변 줍깅(환경정화) 활동을 펼친 후, 오후 2시 30분 7개 교구와 청년교구까지 참여한 교구연합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는 또 6월 14일(주일)은 '녹색주일'로 정하고, 모든 예배에 전력 등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 예배를 드린다.

예배당 냉·난방 및 조명을 최소화하고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으며 오르간도 연주하지 않는다. 대형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성경책을 지참해야 한다.

특별히 녹색주일에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며 복장 또한 다소 시원한 복장을 권장한다.

광주벧엘교회는 지난 수년간 녹색교회를 표방하며 매월 교회에서 정한 '생활 속 실천 목표'를 주보에 게재하여 전 교인이 '자발적 불편'을 통한 '생활 속 실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 교회의 6월 녹색교회 캠페인 주제는 "물은 아껴 쓰고 자원은 다시 써요"이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이명석 교수는 "많은 교회들이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고 예배 및 세미나 등은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며 "광주벧엘교회처럼 수년 동안 전 교인 세미나와 녹색예배, 그리고 생활 속 실천을 지속하고 있는 교회는 거의 유일하다"고 평가했다.

아프리카 가나에 '생명의 물' 선물

광주제일교회 '2026 Global 6K for Water' 개최

광주제일교회(위임목사 권대현)는 지난 5월 31일 성도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프리카 아동들을 돕기 위한 '2026 Global 6K for Water'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개발도상국 아동들이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매일 걸어야 하는 평균 거리인 6km를 참가자들이 직접 걷거나 달리며, 그들의 현실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해 이웃 사랑의 뜻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모금된 약 1,700만 원의 후원금 전액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을 통해 아프리카 가나 판테아크와 마을의 식수위생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지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제공함으로써,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뜻깊은 섬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성도들은 6km 코스를 완주하며 아동들의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 2km 지점에서는 '공감과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며 매일 같은 길을 걸어야 하는 아이들의 어려움에 마음을 모았고, 이어 4km 지점에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며 힘겨운 여정 끝에 마주할 깨끗한 물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Global 6K for Water'는 참가비 전액이 개발도상국 식수위생사업에 기부되는 월드비전의 글로벌 캠페인이다.

광주제일교회 성도들이 아프리카 가나에 생명의 물을 전달하는 'Global 6K for Water'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열방이 한국에 왔습니다

K-Pop / K-Food / Now K-Gosp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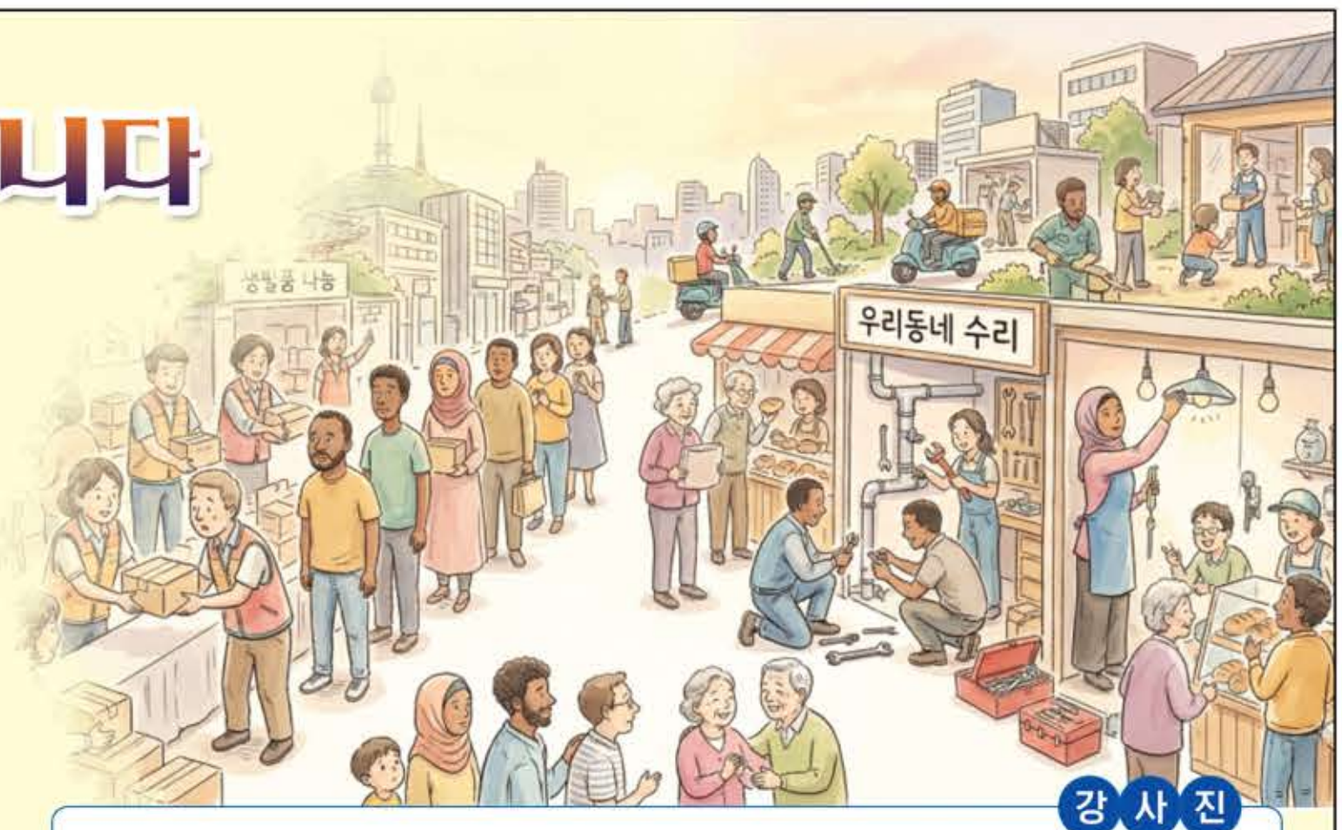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열방을 한국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한국에 찾아온 무슬림 이웃, 교회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2026 열.무.김.치 세미나

(열방에서 온 무슬림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한국교회 네트워크)

한국에 거주하는 무슬림 이주민과 난민을 향한 실제적인 선교 전략과 사역 사례를 나누는 현장 중심 선교 세미나

일 시 2026년 6월 16일(화) 오전 10시 ~ 오후 4시
장 소 서울 삼일교회 비전센터 그라운드31(G2)
참가비 1만원 (점심식사 및 교재 제공)
문 의 류영민 010-3723-7942 신청 QR→



강사진
- 셈 문 선교사 (이태원 무슬림 거리전도 사역)
- 안드레 선교사 (베이튼 누르·빛의 집 아랍이주난민센터)
- 정연주 센터장 (희망의마을센터)
- 김하리 선교사 (램프다문화센터)
- 구은혜 선교사 (SH센터)
- 김요셉 선교사 (안디옥열방교회 담임)

선교지는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열방의 이웃이지금 우리 곁에 있습니다.